

##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통역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 NATO 회원국, 호주, 현지 직원 재배치 촉진

(워싱턴 DC) –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군하는 국가들은 탈레반 군대로부터 점점 더 위험에 처해 있는 전 아프간 통역사와 기타 직원들을 재배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휴먼라이트워치가 오늘 말했습니다.

**2021년 9월 11일 이전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외국 군대의 계획된 철수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통역, 번역가, 대사관 직원 및 기타 외국 군대의 보좌관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고조시켰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및 기타 국가는 비자 처리 및 재배치 (relocation) 노력을 시급히 가속화해야 합니다.**

패트리샤 고스만(Patricia Gossman)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외국 군대나 대사관과 협력한 아프간인들은 탈레반의 보복을 당할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떠나는 국가들 외국군과의 협력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을 지원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탈레반은 6월 7일 성명에서 전직 통역사들과 외국군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을 부인하면서도 반대로 그들은 이렇게 반드시 행해야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과거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이슬람과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에 종사해왔던 그런 활동을 앞으로는 다시 하지 않아야 만한다” 그러나 탈레반은 오랫동안 민간인, 특히 아프간 정부나 외국인을 위해 일한다고 비난하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1월 탈레반 반군은 미국을 위해 12년 동안 일하면서 비자를 기다리고 있던 통역사 1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전 통역사들은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6월 1일 현재, **미 국방부**는 미군과의 협력으로 인해 탈레반으로부터 위험에 처한 것으로 간주되는 아프간인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옵션을 계속 개발 중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어떠한 긴급 계획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약 18,000명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자가 미국 특별 이민 비자(SIV) 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 정부를 위해 일했던 아프간 직원과 그 가족들을 신속하게 재배치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옹호 단체는 프로그램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모든 전 아프간 직원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6월 1일 영국군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고용자들을 옹호하는 술하(Sulha) 연합은 모든 NATO 회원국이 전직 통역사와 다른 아프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재배치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ATO는 이전 계획을 제공하지 않는 캐나다와 같은 일부 회원국과 함께 접근 방식이 분열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호주와 독일은 재배치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4월에는 **호주** 군인들과 함께 일했던 아프간 통역사 41명이 호주 군대가 철수한 후 탈레반에 의해 살해될까 두려워 호주 정부에 인도주의적 비자를 요청했습니다. 통역사는 "우리는 호주 정부에 비자 신청의 우선순위를 다시 지정하고 가속화하고 우리가 노출된 극도의 위협으로 인해 예외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대우할 것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썼습니다.

호주의 Marise Payne 외무장관은 6월 1일 상원 위원회에서 아프간 직원에 대한 비자 평가가 신속한 재배치 계획이 아닌 정상적인 "특별 인도주의 비자"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대사관의 경비원과 기타 계약직 직원은 영어로 작성해야 하는 복잡한 34페이지 양식을 사용하여 역외 인도주의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경비원은 가디언에 "우리는 이메일 주소에 자신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캔버라가 우리에게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릅니다."

호주 재향 군인 단체인 호주 복귀 및 서비스 리그(Returned & Services League of Australia)는 호주 정부가 아프간 지원 직원을 위한 특별 인도주의 비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영국과 미국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는 2019년 네덜란드 군대에서 근무한 통역사에게 비자를 부여하고 망명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이러한 신청서 처리는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포함된 20페이지 분량의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다른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 지연에 대한 우려로 네덜란드 하원은 6월 3일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동의를 제출했지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한 의원은 "시간이 촉박하고 이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군**과 함께 일했던 약 450명의 아프간 직원들이 재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옹호 단체는 해당 절차가 지연되어 신청자가 위험에 직면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10년 동안 독일군에서 근무한 한 아프간 통역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독일 단체인 ProAsyl은 정부에 아프간 통역사들의 신속한 재정착을 촉구하며 "이 사람들을 지금 남겨두는 것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ossman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국가들은 이전 아프간 직원에 대한 대피, 재배치 및 재정착 계획을 개발하는 데 너무 느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경로가 너무 느리고 연합군을 위한 작업으로 인해 사냥당할 수 있는 아프간인과 그 가족을 위해 신속한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